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 민중 개념의 형성 과정 연구

강정구*

목 차

- I. 서론
- II. 간과된 기원
- III. 개념의 소급·적용
- IV. 민중의 재구성
- V. 결론

I. 서론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 담론화된 민중 개념의 형성 과정이다.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주로 민중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많은 논쟁이 진행됐음에도 무난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중 개념의 아이러니에 있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대다수(衆)의 사람들(民)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를 역사의 변혁이라는 전망 속에서 규정한 특이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존한다는 점에서 실체이나, 그 전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실체인 셈이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정체성 논쟁이 은연중에 민중 개념의 형성 시기와 과정을 간과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중이라는 용어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십여 년 사이에 한국문학의 담론 속에 재배치되면서 그 담론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는 점이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다. 민중과 문학이 결합된 민중-민족문학이라는 현상은, 전대미문의 낯선 것이었지만 급속하게 한국문학을 재인식·재구성하게 만든다. 변혁의 주체라는 낯선 논쟁이 제기되고, 과거의 사람들이 민중으로 명명되며, 당대의 주요 이론들이 민중 담론으로 흡수되는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도래한 것이다. 이 때 이 모든 것이 민중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인 대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변화에도 민중 개념의 기원과 형성 논의가 거의 부재했음은, 당대 현실의 급박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된다. 개발독재의 부작용을 해소할 역사 변혁주체의 필요성은, 부지불식간에 민중의 정체성을 따진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추측이 든다. 1960~90년대 비평의 과제는 ‘누가 싸워야 하는가’였지 ‘민중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문학 담론의 성격이 민중 개념에 의해서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그 개념의 형성 문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유발시킨다. 원래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시하던 실제 개념이 역사변혁주체를 의미하는 전망 개념과 동일시된 특정한 시기를 분석하면, 한국문학 담론에 스며들어 최근까지 중심 담론의 논리 역할을 했던 특유의 민중-민족주의적인 인식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196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사이에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 민중 개념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민중 개념의 출현으로 인해서 한국문학의 담론이 재인식·재구성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민중 개념은 탄생하자마자 그 기원을 은폐하고서 ‘사건 이후’(after the event)의 현상으로 담론화되었다는 점을 규명한다는 점에 이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민중 개념은 한국문학의 담론장에서 1920년대에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원 개념으로 통용됐지만, 그것이 역사변혁주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띠기 시작한 것은 본 고찰에 따르면 1969년에 백낙청이 평론 「시민문학론」을 발표한 이후이다. 그 개념은 1969년 이후에 탄생해서 그 이전의 한국문학을 설명하고 미래의 과제를 설정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점은 주목에 값한다. 우리가 아는 민중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은 그 개념이 최초로 사용됐던 사건 그 이후에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민중을 구심점에 놓는 연구사는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향을 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민중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기존 연구사의 주요 논점은 ‘민중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였다. 이 때 중요한 사실은 역사변혁주체라는 개념이 확정된 뒤에 논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민중 개념은 그 실체가 애매모호하고 불분

명하다는 직간접적인 비판과 반발에 맞서는 가운데에서 그 의미의 경계선이 그어졌다든 점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그 개념은 다양한 비판을 수용 혹은 배제하는 논쟁의 맥락 속에서 태어났고 서서히 의미화됐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사는 논의의 맥락에 따라서 대략 세 시기로 나뉜다. 먼저, 1960~70년대의 연구에서는 민중 개념을 일의적(一義的)·단선적인 사고의 결과로 논했는데 이러한 비판에 맞선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대응 과정에서 그 개념이 좀더 분명해졌다. 민중 개념에 대한 최초의 비판은 평론 「시민문학론」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제출됐다. 김현은 백낙청이 “민중의 개념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 없”고, 그 주체세력이 ‘중산층’, ‘대 부르조아’, 혹은 ‘농민’인지도 확실히 설정되지 않았다²⁾고 비판했다. 그 정도로 민중이라는 용어는 분명한 의미의 경계선을 지니지 않은 채, 다만 저항적이라는 막연한 의미를 지니고서 출현했던 것이다. 이렇게 출현한 민중은 ‘역사의 주인’ 혹은 역사변혁주체로 재 논의됐고, 그 논의가 “심정적·단선적인 사고의 결과”³⁾인 것으로 재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은 역사변혁주체라는 핵심 개념을 고수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로 문제되었다. 1970년대의 민중 개념에 대한 좀더 심화된 비판이 진행됐던 것이다. 그것은 계급주의적인 시각과 구조주의적인 시각으로 구분됐다.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민중 개념에 대해서 계급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소시민과 노동계급을 구분하지 않은 비(非)계급적인 시각의 소산임을,⁴⁾ 그리고 구조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지배 체제가 현실에 세워놓은 상징적 질서(국가를 그 정점으로

2) 김현, 「시와 톨스토이주의」(『시인』 1969.10),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김현 문학전집③』(문학고지성사, 1991)에 재수록, 127쪽.

3) 김주연, 「민족문학론의 당위와 한계」, 『문학과 지성』(1979. 봄호), 『뜨거운 세상과 말의 서늘함』(솔, 1994)에 재수록, 58쪽.

4) 소위 말하는 '1980년대 중반의 민중적 민족문학론자들은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민중 개념을 계급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다.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에 나타난 민중은 소시민(지식인)과 노동자계급이 다 포함되거나 서로 연대하는 개념이었는데, 그들은 그 개념 설정이 비계급적임을 문제 삼았고 소시민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봤다. 역사변혁주체의 자리에 소시민을 몰아내고 노동자계급을 세우려는 시도였다. 채광석은 “오늘날의 노동자들의 삶과 실천의 자리는 소시민적 삶과 실천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소시민적 민족문학에서 민중적 민족문학으로』, 『개방대학신문』(1986), 『민중적 민족문학론』(풀빛, 1989)에 재수록, 219쪽)음을, 김명인은 “소시민 계급의 시각으로는 더 이상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와 진리의 총체성을 보는 것이 불가능”(『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전환기의 민족문학』(풀빛, 1987), 97쪽)함을, 김진경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문제를 소홀히 함”(『민중적 민족문학의 정립을 위해』, 『전환기의 민족문학』(풀빛, 1987), 116쪽)을, 그리고 조정환은 “진정한 민중성에 뒤지는 민중지향성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민중적 당파성에 입각해야”(『80년대 문학운동의 새로운 전망』, 『서강』(1987. 6),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에 재수록, 34쪽)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백낙청의 민중 개념이 비과학적·비계급적임은 홍정선과 임우기 등에 의해서 비판된 바 있다.(홍정선, 「민족문학 개념에 대한 역사적 검토」, 『문학과사회』(1988. 가을호), 1060쪽; 임우기, 「민족문학론의 계급론적 관점」, 『문학과사회』(1988. 가을호), 1087쪽.)

하느)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이루는 상징적 질서”⁵⁾의 정점임을 각각 비판했다. 이런 비판들은 민중 개념을 말하는 단일한 시각의 절대성을 반박·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민중이란 어떤 명확한 의미의 경계를 가질 수 없고, 나아가서 그 의미는 담론의 성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임을 암시한 것이었다⁶⁾.

1990년대 이후에는 민중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들이 제기됐다. 역사변혁주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거나 구성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주장은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이후 역사변혁의 전망을 의심·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선 시대착오적이라는 쪽에서는 소외·억압된 민중이라는 “위기의 역사적 실체가 불분명해”졌고, “연대세력의 연결고리는 와해” 또는 “단자화되고 분열”됐음⁷⁾을 주장했다. 나아가서 “현실을 넘어선다는” 제3세계 민중의 해방 논리 그 자체가 이상주의적인 태도로 비난되기도 했다.⁸⁾ 이런 비판들은 민중 개념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지적을 좀더 밀고 나아가면 구성주의적인 사유와 만났다. 민중 개념은 “공백의 기표”로 혹은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했을 때”에만 힘을 발휘하는 ‘무구성(無垢性)’⁹⁾으로 설명됐다. 민중에 대한 이런 논쟁들은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민중 개념이 신비화·절대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 형성 과정을 주목하지는 못했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민중 개념 연구는 형성의 과정을 밝히는 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민

5) 정과리, 「민중문학론의 인식 구조」, 『문학과 사회』(1988. 봄호), 80쪽.

6) 민중 개념은 담론의 성격에 따라 제기되다가 아예 무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출발 자체가 민중의식이라는 역사적인 개념을 내세우는 과정으로 이어졌”(권영민, 「민족문학론의 논리와 실천」, 『한국민족문학연구』(민음사, 1988), 533쪽)지만, 반면 1980년대의 보수적 민족문학론에서는 민중을 아예 배제하고 그 대신에 ‘인간’ 혹은 막연히 “자연 창조와 자각에 수반되는 주체적 의지”(윤병로, 『참다운 민족문학의 정립』(1986), 민족문학의 모색』(한국학술정보, 2001)에 재수록 46쪽)를 강조하기도 했다.

7) 이광호, 「〈민중문학〉의 역사적 범주에 관하여」(1994), 『환멸의 신화』(민음사, 1995)에 재수록. 59쪽; 문홍술, 「민족문학론의 위기와 실체, 그리고 올바른 방향」, 『존재에 이르는 집』(작가, 2004), 115쪽; 신승엽, 「민족문학론의 방향 조정을 위해」(1997), 『민족문학을 넘어서』(소명출판, 1999)에 재수록. 50쪽.

8) 이일환, 「백낙청론-또 하나의 이상주의자」, 『알레고리와 아이러니 사이』(한신문화사, 1999), 149쪽.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도 팽팽했다. 제3세계 민중의 시각은 “민족을 동질적 단일체로 설정하는 민족주의의 환상을 폭로”(하정일, 「제3세계 민중의 시각과 민족주의의 내적 극복」, 『만해학보』(2003, 여름호), 120쪽)한 개념이며, “서구적 근대를 근대 전체로 파악하는 ‘유럽중심적 패러다임’을 훌쩍 뛰어넘는”(신승환, 「시민문학론에서 근대 극복론까지」, 설준규·김명환 편, 『지구화시대의 영문학』(창비, 2004), 257쪽) 것이기도 했다.

9) 황종연, 「민주화 이후의 정치와 문학」, 『문학동네』(2004. 겨울호), 397쪽.; 김철, 「민족-민중문학과 파시즘」, 『한국현대문학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1998), 『국민이라는 노예』(삼인, 2005)에 재수록. 227-228쪽.

중 개념을 지지 또는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과정을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1969~1979년 사이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의 주요 평론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뒤, 그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탈민족주의적인 인식(post-nationalistic cognition)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¹⁰⁾ 진보적 민족문학론을 다시 읽으면서 민중 개념이 언제 기원했고, 그 개념의 의미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간과된 기원

민중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역사적인 기원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의 민족사관(民族史觀)에 영향을 받은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는 근대 초기 사회운동과 혁명의 참가자들을 민중으로 불렀으며, 그 비판자들은 주로 민중의 주체세력과 그 의미의 경계가 불분명함을 문제 삼았다(앞 장의 연구사를 참조할 것). 민중을 둘러싼 이 논쟁에서 민중 개념의 기원 문제는 처음부터 간과됐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변혁주체라는 민중 개념은 특정한 시기의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원을 파악하는 일은 민중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장에서는 간과된 기원을 탐구하고자 한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사용됐지만 거기에는 역사 변혁주체라는 개념이 빠져 있었다. 민중은 단지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지식인 혹은 지도자가 주도했던 계몽의 대상이자 대변해 주어야 할 존재였다. 식민지 시대에 민족주의 계열의 일간지 『동아일보』 사설에서 “특권계급일 수는 없”는 “농민·어민·노동자를 합한 것”¹¹⁾으로, 아나키즘 계열의 신채호는 “피지배자들” 혹은 “식민지 무산 대중”¹²⁾ 정도의 개념으로 민

10) 이 논문에서 말하는 탈민족주의적인 인식이란 구체적으로 베네딕트 앤더슨(B. Anderson)과 에릭 홉스봄(E. Hobsbawm)의 사유를 말한다. B.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근대 민족주의의 기원이 땅각돼 있으며, 민족주의가 역사적·문화적 구성물임을 밝힌 바 있고, E. 홉스봄은 『만들어진 전통』에서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의 이미지를 ‘만든’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의 논의는 오늘날 강력한 신념으로 절대화된 민족주의를 ‘탈’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탈민족주의론으로 규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민중 개념이 그 형성 과정에서 기원이 땅각된 채, 과거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며’, 담론의 확장 과정에서 재구성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를 방법론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B. Anderson,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나남, 2002) 참조; E. Hobsbawm 외, 박지향·장문석 공역, 『만들어진 전통』(휴머니스트, 2004) 참조.

11) 『동아일보』(1924. 2. 6)

12) 신채호, 「조선혁명의선언」(1923)

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민중은 국민, 민족, 인민, 대중,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무산자라는 용어와 경쟁했고, “어떤 이념적 집착보다는 이를 일탈한 삶 그 자체에 초점이 모아진”¹³⁾ 경우에 편의상 사용됐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민중이라는 용어의 활용은 대동소이했다. 좌우익의 글에서 모두 씌었지만, 이데올로기의 논리로 포섭되지 않은 막연한 무리를 지칭한 용어였다.

이런 사정은 1960년대 중반까지 마찬가지였다. 1969년에 민중을 새롭게 개념화한 백낙청의 경우에도 1965년까지 계몽의 대상으로 이해했다. 가령 “한국에 관한 한, 민중의 저항을 가로막고 근대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이상을 제시하며 또 실천하는 역사의 주동적 역할을 작가와 지식인이 가로막아야 한다는 데에 딴 말이 있기 어렵다”¹⁴⁾라는 구절 속의 민중이 그러했다. 민중의 저항은 그들 스스로 실현시키지 못하며, 지식인이 대신(‘가로’) 맡아야 했다. 이처럼 민중은 지식인에 의해서 대변되는 존재였지만, 한국사를 민족 혹은 민중 중심의 역사로 재평가한 민족사학의 직·간접적인 영향¹⁵⁾ 이후부터는 역사 변혁주체로 사고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사고가 처음 드러난 글이 「시민문학론」이다.

외세를 헛밧었던 갑신년(1884)의 무모한 쿠데타나 외세에 의해 주도된 10년후의 갑오경장(1894) 역시 독자적 시민의식의 발달사에서는 큰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공통된 치명적 약점은 한마디로 민중과 호흡이 일치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은 민중대로 시민의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다시 말해서 대다수 민중과 소수의 선구적 지식인이 하나의 시민의식으로 뭉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는 한, 소수 선각자의 업적은 거의 있으나마나 한 것이었다는 풀이가 나와도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가능성의 존재를 우리는 갑오년(1984) 동학농민전쟁에서 보는 것이다.¹⁶⁾

13) 임현영, 「민중문학의 사상적 의미」,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127쪽.

14)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 (1966. 겨울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에 재수록. 356쪽.

15) 1960대 후반에는 한국사를 민족사 혹은 민중사로 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이기백의 저서 『한국사신론』 (1967)과, 한우근, 이기백, 이우성, 김용섭 등의 보고서 『중고등학교 국사 교육을 위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969)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이들의 논의는 민족의 주체성, 세계사적인 시야 속의 민족사, 민족사의 내재적 발전방향, 인간 중심의 역사서술, 각 시대 민중 활동과 참여의 부각 등을 강조했다. (이종욱, 「역사는 다시 쓰여진다」, 『한국사학사신보』 8 (2003. 9), 198-200쪽 참조.)

16)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비평』 (1969. 여름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에 재수록. 41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뒤바뀐 민중의 위상을 보여준다. 민중은 더 이상 “소수의 선구적 지식인”이 대변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하나의 시민의식으로 뭉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자라고 있”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새로운 민중 개념의 기원을 알리는 시원이 된다. 원래 계몽의 대상이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실체)이 이제 그 스스로가 계몽의 주체(전망)로 재론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민중과 지식인의 관계가 역전된다. 민중 자신이 프랑스혁명기의 시민계급이 보여준 시민정신을 오늘날 계승·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반면, 지식인은 “민중과 호흡이 일치된 운동”을 보여주지 못하면 “독자적 시민의식의 발달사에서는 큰 빛을 발하지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계몽의 주도세력이 지식인에서 민중으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민중 개념은 197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민족문학논쟁을 거치면서 조금씩 구체화된다. 진보적 민족문학 진영에서 민중은 “민족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민족적인 비운이 곧 자기 자신들의 직접적 인생의 불행으로 직결되”¹⁷⁾는 것으로 설명되며, “민족의 식 발굴작업”의 기본 관점이 되어서¹⁸⁾ “과거의 조선 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한 것으로¹⁹⁾ 논의된다. 또한 국가의 탄압에 맞서서 “참된 역사”를 ‘창조’하는 ‘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²⁰⁾. 이런 언급을 통해서 민중 개념에는 차츰 역사변혁주체라는 전망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그 전망이 분명한 육체성을 지니고서 문학론과 결합된 것은 1974년에 발표된 백낙청의 평론 「민족문학개념의 정립을 위해」에서이다.

민족문학이란 그 어느 시기에건 민족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을 외면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항일 민족운동의 시발점이 종래 지도계급의 이념적·실천적 파산기와 겹침으로써 민족문학이 민중에 바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즉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 민족주권을 수호하는 일을 양반에서 기대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해진 결과 그 대안으로서는 민중 스스로가 이 과업을 떠맡는 길 밖에 없었고 이러한 역사적 사명이 안겨진 민중의식을 표현하고 일깨우는 문학만이 참다운 민족문학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한국의 근대문학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²¹⁾

17) 김지하,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1970. 11. 4),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동광출판사, 1984)에 재수록. 194쪽:193쪽.

18) 임현영, 「『민족문학』 명칭에 대하여」, 『한국문학』(1973. 11), 179쪽.

19) 염무웅, 「민족문학, 이 어둠 속의 행진」, 『월간중앙』(1972. 3), 109쪽.

20) 임현영, 「민족문학에의 길」, 『예술계』(1970. 겨울호), 44쪽.

21)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월간중앙』(1974. 7),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창작과 비평사, 1978)에 재수록. 129-130쪽.

민중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 민족주권을 수호하는” ‘과업’을 떠맡는 존재이고, 그러한 과업을 적극 표현하는 문학이 “참다운 민족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위 인용문의 요지이다. 이 글에서 민중은 「시민문학론」에서처럼 지식인과 동반자적인 입장이 아닌, 그 “스스로 이 과업을 떠 맡”는 핵심적인 혹은 유일한 역사변혁주체로 부상한다. 또한 민중은 민족문학론의 전개 방향이 제시될 때에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민중은 현실에서 소외·무지·고통의 (실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민족주권을 수호하는” (전망의) 과업을 떠맡아야 하는데, 그 과업을 적극 개진하는 것이 ‘민족문학’인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민중의 원 개념은, 백낙청을 비롯한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의 논의 속에서 역사변혁주체라는 뚜렷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민중 개념의 기원이 분명한 역사적인 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변혁주체로서의 민중 개념은 오래 전부터 한국문학에서 통용됐던 것이 아니라, 1969~1974년 사이에 민족사학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민족문학논쟁의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중 개념은 탄생과 동시에 그 기원이 간과된 채 논의된 것이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민중 개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을 살피는 일일 것이다.

Ⅲ. 개념의 소급·적용

민중 개념은 탄생하자마자 과거의 한국문학을 설명하는 용어로 대두된다. 역사변혁주체로서의 민중은 1969년에 처음 담론화 된 용어이지만, 그 이전 시기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의미를 과거로 소급·적용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과거라면 민중으로 부르지 않았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민중으로 호명되는데, 거기에는 역사변혁주체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문학의 인식틀(episteme)이 민중-민족문학적인 것으로 전환·고착 되어감을 뜻한다. 그러나 민중은 그 기원 이전의 담론에서 역사 변혁주체로 논의된 바 없었고, 더욱이 오래 전부터 실존했다는 주장은 기원(사건)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민중 개념이 한국문학에서 소급·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역사변혁주체로서의 민중이 과거의 한국문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소급·적용된 시기는, 신경림의 평론 「문학과 민중」이 발표된 1973년부터인 것으로 조사된다. 민중 개념은 백낙청의 평론 「시민문학론」에서 처음 사용되지만, 그것은 주로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됐다. 정작 한국문학을 논할 때에는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재평가”했다. 만해 한용운이 ‘시민시인’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그의 시가 민중을 주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과 자유에 대한 사랑, 종교적 진리에 대한 사랑”인 ‘시민의식’을 보이기 때문이었다.²²⁾ 또한 1972년의 신경림도 농촌 “토지소유관계상의 모순에 기인한 빈곤”을 경험하는 농민을, 단지 농민으로 표현했지 민중으로 논하지 않았다.²³⁾ 그 때까지 민중은 문학과 긴밀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듬해의 신경림 논의에서는 분명히 변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위적 자본주의화·산업화 과정에서 민중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을 치른다거나 인간성이 결정적으로 파괴된다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가령 이해가 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동네 사정이었다. 꽃과 새소리를 즐기고 달과 구름을 읊으면 그만이었다. 마침내 우리의 시에서 한용운, 이상화 또는 백석, 이용악 등 시대정신에 투철하고 민중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었던 시인들이 남긴 것은 그 자취도 없어지고, 양반의 시, 선비의 시, 건달의 시만이 활갯짓을 하게 되었다.²⁴⁾

위의 인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중의 목소리”라는 표현이다. 식민지 시기에 어떤 이념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민중이라는 표현 속에는 역사변혁주체라는 개념이 부재했던 반면, 위에서는 반식민적인 저항 혹은 변혁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한용운, 이상화, 백석, 이용악 등의 시적 경향은 반식민적 저항과 식민구복(역사변혁)에 관한 것인데, 신경림은 그러한 경향을 “민중의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민중’이라는 용어는 1969년 이후에 탄생한 역사변혁주체라는 개념을 소급·적용시킨 것이다. 역사변혁주체를 암시하는 ‘민중’이라는 표현은 1920~30년대가 아니라, 1969년 이후에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경림의 사고방식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독특한 것이다.

이후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는 과거의 한국문학을 논할 때에 민중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염무웅은 식민지 시대의 문학이 “민족사의 최고가치인 반봉건적 근대의식과 반제국주의적 민족의식을 자기 속에 예술적으로 통일한 문학, 즉 항일민중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²⁵⁾ 백낙청은 18세기 평민문학을 “민중이 즐기고 민중을 움직일 수

22) 백낙청, 「시민문학론」, 위의 책(1978), 45쪽:51쪽.

23)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창작과비평』(1972. 여름호), 『문학과 민중』(민음사, 1977)에 재인용 93쪽.

24) 신경림, 「문학과 민중」, 『창작과비평』(1973. 봄호), 문학과 민중』(민음사, 1977), 48쪽.

25) 염무웅, 「식민지시대 문학의 인식」, 『신동아』(1974. 9), 49쪽.

있는 문학”²⁶⁾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의 한국문학은 차츰 민중이라는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재인식되고, “과거의 전통이란 언제나 다수 민중의 실질적 요구에 맞춰서 보존되고 혹은 변형되어야”²⁷⁾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런 의미에서 1975년에 발표된 백낙청의 평론 「민족문학의 현단계」는 그 의견의 구체적인 구현이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연속되는 상황이라도 민주회복이 되고 국토통일이 될 때 민족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 확실하듯이, 19세기 후반 이래로 이어져온 민족문학의 역사도 중대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변화하고 발전해왔음을 본다. 극히 상식적이고 개괄적인 시기구분을 하더라도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경장이 있는 1894년은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룰 것이고 식민지로 줄달음치던 때와 정착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이 구별될 것이며, 식민지시대의 문학을 말할 때 1919년의 3·1운동이 차지하는 획기적 중요성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945년의 해방이 민족문학의 새로운 한 단계를 이룩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중략) 따라서 4·19에서 비롯된 현단계의 당면과제 역시 분단문제 자체의 해결이라기보다 그 해결의 전제조건 달성을 위한 4·19 이래의 과업을 성취하는 일이다. 70년대 중반 우리의 민족문학적 양심이 ‘민주회복’을 목전의 과제로 인식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 이 목전의 과제가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단현실의 지혜로운 해결의 전제조건인 인권존중의 사회질서 속에서 분단시대 민족문학의 다음 단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백낙청의 문학 논리에서 ‘민족문학’이란 민중 중심의 민족문학을 뜻한다. 그 이전의 논의가 특정한 몇 시기의 한국문학에 나타난 민중을 역사변혁주체로 소급·적용시키고 민족문학의 어느 한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면, 위의 논의는 19세기 말 이후의 한국문학 전체를 민족문학으로 설명한다. 민족문학의 연속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문학에는 크게 식민지, 분단, 4·19로 나뉜 역사적인 단계에 따라 그 단계에 맞는 “목전의 과제”가 제시되고, 그것을 달성해야 “다음 단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때 “목전의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민중이다. 민중은 앞 장에서 “스스로가 이 과업을 떠맡는” 존재로 표상되었듯이, 한국문학의 역사 단계별로 ‘과제’ 실현의 주체가 되

26)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위의 책(1978), 130~131쪽.

27) 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1975, 봄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창작과비평사, 1985),에 재수록, 11쪽.

28) 백낙청, 앞의 평론(1975), 14쪽; 25쪽.

는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서 민중 개념은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에 일관되게 소급·적용될 근거가 마련되고, 한국문학 전개에 내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문학의 성격이 민중-민족문학적인 것으로 변하는 셈이다.

민중 개념이 한국문학의 과거로 소급·적용되는 과정은 그 개념의 의미가 확대됨을 뜻한다. 민중 개념은 1969년 이후에 앞으로 있어야 될 변혁주체라는 의미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문학의 역사를 주도한 변혁주체였다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소급·적용 현상은 이후 좀더 진행되면서 한국문학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197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민중 개념이 18세기 혹은 19세기 말로 소급·적용된 것에 비해서, 1990년대의 여러 논자들은 아예 한민족의 기원과 일치시키고 한국문학사를 민중-민족문학사로 재인식하기도 한다.²⁹⁾ 이런 논의들은 개발독재에 맞선 대항적인 주체를 민중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의 이미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문학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의 시도는, 당대의 여러 변혁 논의를 민중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IV. 민중의 재구성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민중 개념은 민족 담론을 재구성하는 핵심 용어가 된다. 원래 민족주의 논의에서 계몽의 대상이었던 민중은, 진보적 민족문학론이 주장한 민족주의 논의에서는 계몽의 주체로 그 위상이 변화된다. 이 변화는 민중 동원의 논리인 민족주의를 민중 주체의 논리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민중은 단순히 역사변혁주체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민족 담론의 중심에 위치하는 핵심 개념으로 부각된 것이다. 민중은 민족주의 운동의 주도자요, 그러한 운동의 일환인 민족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중 개념은 원래의 실존을 날카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의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 재구성된 것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그 과정을 세밀히 주목하기로 한다.

진보적 민족문학론 이전의 민족 담론에서 민중은 한번도 주체의 자리에 놓인 적이 없었다. 원래 민족주의는 인민(people) 주권과 국민투표(대의정치)에 기초해 성립된 정치

29)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 강좌』 (창작과비평사, 1995) 참조.

이념이었지만, 그 속에서 인민은 국가를 통한 대의의 대상 혹은 통제·동원의 대상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홉스봄(E. J. Hobsbawm)은 18세기 이후의 서구 민족주의를 “지배엘리트 또는 중간계급이 인민을 동원해온 이데올로기”³⁰⁾로 규정했으며, 임지현은 서구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와 제3세계 민족 해방 운동 역시 “민중은 통제되고 지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공유”³¹⁾했음을 검토한 바 있다.

이처럼 민족주의가 민중 동원의 논리라는 사실은, 김현이 민족문학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하는 권력 지향적 특성이 또한 나에게서 싫다”면서, 민족문학을 “정신의 나치즘화”³²⁾로 비하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1970년대 초반의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는 이런 비판에 맞서서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의 논리와 그 이전의 역사 속에 출현한 민족주의 논리 사이의 변별점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런 필요에 대한 응답이 민족문학 논쟁을 발생시켰으나 그 변별점은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염무웅이 “참된 근대적 민족문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순수주의와 자기상실적 민족허무주의를 다 같이 극복”³³⁾해야만 가능함을 역설했지만, 두 민족주의 사이의 변별점은 쉽게 모색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국수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민족주의 자체를 경계하고 민족문화·민족문학의 이념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는 본말을 뒤집는 꼴”이라면서 “참다운 민족주의”³⁴⁾를 주장한 1974년의 백낙청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과제는 기존의 논리와 구별된 새로운 민족주의 논리의 모색이 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오늘날의 인간해방운동이 억눌리고 소외된 다수 민중의 각성과 주체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역사의 논리를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겠거니와, 여하튼 제삼세계 억눌린 민족들의 자기주장이 범세계적 인간해방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듯이, 이들 민족내부에서도 그러한 사명의 실천은 소외된 민중의 주체성 쟁취 과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³⁵⁾

위의 글에서는 민족 동원의 논리인 민족주의를 민중 중심의 논리로 재구성하고 있음

30) E. J. Hobsbawm, 강명세 역, 『179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비, 1994). 참조.

31) 임지현,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이념의 속살』 (삼인, 2001), 121쪽.

32) 김현, 「민족문학, 그 문자와 언어」, 『월간문학』 (1970. 10), 191쪽.

33) 염무웅, 「민족문학, 이 어둠 속의 행진」, (1973), 110쪽.

34)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위의 책(1978), 137쪽.

35) 백낙청,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 『창작과비평』 (1978. 겨울호),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시인사, 1979)에 재수록. 128쪽.

을 보여준다. 백낙청은 제3세계 민족주의, 즉 “제삼세계 억눌린 민족들의 자기주장”을 “소외된 민중의 주체성 쟁취 과정”이라는 논리로 해체·재구성한다. 민중은 기존의 민족주의 논리에서 동원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논리에서는 “민족들의 자기주장”을 드러내고 ‘인간해방’이라는 “사명의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로써 자리매김한다. 소외된 민중이 주체가 되는 것이 ‘인간해방’이요 제3세계 민족주의의 ‘실천’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민중이 단순히 역사변혁주체라는 기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민족 담론에서 민족주의를 실현시키는 주체의 자리에 위치하게 됨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중은 민족 담론의 중심점이 된 것이다.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인 민중 개념은 그 논리의 전체적인 내용을 재배치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 구상한 민족주의는 해방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기해방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민족주의와 질적으로 다르게 구성된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그 이전의 제3세계 민족 해방 논리가 역사적으로 보여준 “반발과 앙심과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민족주의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기해방의 과정을 겸하는 것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후발국가의 민족주의는 국수주의·배타주의로 변질되고 계급적 차별과 개인독재의 명분이 되며 선진국 민족주의의 타락상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해방’은 (신)식민주의로부터 현실적인 해방을 전제하면서도, 민족주의의 타락상을 반복하는 내면의 ‘유혹’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³⁶⁾

또한, 민중 개념은 당대 한국사회의 민족주의 논의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권력의 민족주의가 분단현실을 악용해서 개발독재를 유지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민족주의는 분단과 억압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때 그 주체가 민중이다. “통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분단체제의 온갖 특권과 기득권에서 소외된 사람들, 즉 민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³⁷⁾이다.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민족주의에서는 민중이 통제·억압·동원의 논리로 환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민중의 ‘자기해방’이 곧 ‘인간해방’이요, 그것이 다시 ‘인권운동’(반통제·반억압·반동원)의 실현이 된다는 논리를 모색한다. 민중을 정점으로 한 민족주의의 논리는 그 이전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민족 내부에 대한 것이었다면, 차츰 관심은 민족 외부로 향하게 된다. 억

36) 이러한 논리는 식민지 민중이 식민주의에서 해방되려면 자기 내면의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프란츠 파농의 논리와 대응되는 것이다.(F. Fanon,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인간사랑, 1998), 107-138쪽 참조.)

37) 백낙청,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 위의 책(1979), 128쪽.

압과 저항의 문제는 한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중의 입장에 근거한 제3세계론은 본질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보는 이론이면서도 후진국 및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민족주의적 자기주장에 일단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 국가·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은 어디까지나 전 세계의 민중이 하나로 되는 과정의 일부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³⁸⁾

원래 제3 세계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해서 (신)식민화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내부 민족들의 활로를 제3세계라는 공동 범주의 차원에서 고민하자는 논의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이 “각종의 언어·문화·인종·종교로 이루어진 바벨탑”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 사회정의·인권·비폭력·공동선 등을 함께 추구하자는 모색이었다.³⁹⁾ 이 논의에서 제3세계 민족 해방의 주도자가 지식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백낙청의 제3 세계론이 특이한 것은 그 주체를 민중으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제3 세계론은 “민중의 입장에 근거”⁴⁰⁾해야 하고, 여기에서 민중은 민족 내부에서만뿐만 아니라 민족 외부의 “전세계의 민중”과 “하나로 되는 과정”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반체제 저항 운동이 체제화되는 저항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 1970년대 후반의 민중 개념은 제3세계 해방 운동의 주체로, 나아가 세계 전체에서 진행되는 지배자들의 억압을 극복하는 주체로 재구성되는 것이다.⁴¹⁾

민중이 민족 담론의 중심점이 되고 민족주의 논리의 재구성 과정에서 핵심 개념이 된다는 것은, 그 개념의 의미가 확대 되어감을 뜻한다. 역사 변혁주체로서의 민중 개념은 1970년대의 진보적 민족문학론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진보적

38) 백낙청, 「제삼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1979. 가을호),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시인사, 1979)에 재수록, 181쪽.

39) 구중서, 「제3세계와 라틴아메리카 문학」, 『제3세계 문학론』(한벗, 1982), 106쪽.

40) “민중의 입장에 근거한 제3 세계론”이라는 표현에서는 제3 세계론을 주도하는 주체가 민중을 대변하는 지식인일 수도 있고 민중 자신일 수도 있다. 이 때 주체가 지식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이 글의 II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민중 스스로가 이 과업을 떠맡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정립한 백낙청의 기존 생각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의 생각이 경우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변혁주체는 민중이다. 지식인은 민중의 일부이거나 그 주변에서 협조할 뿐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3 세계론을 주도하는 주체를 민중 자신으로 본다.

41)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는 식민주의 대 저항-민족주의 대신 지배자와 민중이라는 새로운 이분법에 의존한 담론을 구성했다는 혐의를 무시하기 힘든 것임을 부기한다.

민족문학론다운 것으로 해체·재구성하는 데에 핵심 용어인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민중이라는 용어가 당대 현실의 필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자, 1970년대 이후의 민족 담론이 지닌 특성을 가장 잘 함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은 그 이전에는 결코 민족주의 논의에서 중심 주체가 되어 본 적이 없었다.

V. 결론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주로 민중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했지만, 문제는 그 논쟁이 민중 개념의 형성 시기와 과정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논문이 주목한 것은 진보적 민족문학에서 민중 개념이 형성된 과정이었다. 민중 개념은 탄생하자마자 그 기원을 망각하고서 기원(사건) 이후의 현상으로 담론화됐다. 한국문학의 담론은 재인식·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서 민중-민족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화된 것이 1969~79년 사이였다. 이 논문에서는 당대의 주요 평론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뒤, 탈민족주의적인 인식의 도움을 받아서 민중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봤다. 논의의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민중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사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역사적인 기원에 대한 자각이 없었지만, 기원 문제는 민중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원 개념으로 이미 사용돼 왔지만, 민족사학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백낙청의 평론 「시민문학론」(1969)부터는 역사변혁주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고되기 시작했다. 민중은 “선구적 지식인”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민의식의 성장”, 즉 역사변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후 임현영과 염무웅의 논의를 거쳐서 백낙청의 평론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1974)에 오면, 동반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과업을 떠맡는” 핵심적인 혹은 유일한 역사 변혁주체로 부상했다.

그리고, 1969년 이후에 처음 담론된 민중 개념은 그 이전 시기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소급·적용됐다. 1969년 이전의 시기에는 과거 사람들을 역사변혁주체로서의 민중으로 부른 경우가 없었지만, 신경림의 평론 「문학과 민중」(1973)에 오면 달라졌다. 신경림은 한용운, 이상화, 백석, 이용악 등의 시가 “민중의 목소리”로 노래함을 지적했는데, 이 때 ‘민중’이라는 표현 속에는 반식민적 저항 혹은 역사변혁이라는 의미가 암

시대 있었다. 이후 백낙청의 평론 「민족문학의 현단계」(1975)에 오면 한국문학은 민중적인 것으로 재인식되었고, “과거의 전통”은 “민중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춰서 보존되고 혹은 변혁되어야” 했다. 19세기 말 이후의 한국문학이 민중 중심의 민족문학으로 논의됐고, 역사 단계별로 “목전의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민중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민중 개념은 민족 담론을 재구성하는 핵심 용어가 되었다. 원래 민족주의 논의에서 계몽대의·동원의 대상이었던 민중은,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민족주의 논의에서는 계몽의 주도자·주체로 그 위상이 변화된 것이었다. 백낙청의 평론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1978)에서 민중은 “민족들의 자기주장”을 드러내고 ‘인간해방’이라는 “사명의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 즉 민족주의를 실현시키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민중 위상의 변화는 기존의 민족주의 논리와 구별되는 근본 원인이었고, 당대 한국사회에서 통일과 반민주 극복의 주체로 대두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나아가서 백낙청의 평론 「제삼세계와 민중운동」(1979)에서는 민중이 “제3 세계의 민중”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 내부뿐만 아니라 민족들 간의 모순을 극복하는 주체로 재구성되었다.

역사 변혁주체로서의 민중 개념은 1969년 이후에 기원했고, 이후 한국문학의 담론장에서 핵심 용어로 급부상했다. 민중은 탄생하자마자 그 기원을 망각한 채로, 과거에도 마치 실재한 개념으로 재인식됐고, 민족 담론에서 민족주의의 실현 주체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문학이 민중-민족주의적인 인식 틀 속에서 이해됨을 뜻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중 개념은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문제의식 속에서 형성된 것이니 만큼, 그 담론적인 성격의 가능성과 한계에 부응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서 민중 개념의 형성 과정 연구가 지닌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 정체성 논쟁을 가로 지르면서 만들어진 민중 개념을 ‘있는 그대로’ 검토해 봄으로써, 민중-민족문학론 연구의 새로운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1924. 2. 6.
- 구중서, 『제3세계와 라틴아메리카 문학』, 『제3세계 문학론』, 한벗, 1982.
- 권영민, 「민족문학론의 논리와 실천」, 『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 김주연, 「민족문학론의 당위와 한계」, 『문학과 지성』 1979. 봄호, 『뜨거운 세상과 말의 서늘함』, 숲, 1994, 재수록.
- 김지하,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1970. 11. 4,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 재수록.
- 김진경, 「민중적 민족문학의 정립을 위해」,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 김철, 「민족-민중문학과 과시즘」, 『한국현대문학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1998, 『국민이라는 노래』, 삼인, 2005, 재수록.
- 김현, 「민족문학, 그 문자와 언어」, 『월간문학』 1970.
- , 「시와 톨스토이주의」, 『시인』 1969. 10.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김현 문학전집③』, 문학과지성사, 1991, 재수록.
-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0.
- 문흥술, 「민족문학론의 위기와 실제, 그리고 올바른 방향」, 『존재에 이르는 집』, 작가, 2004.
-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 강좌』, 창작과비평사, 1995.
-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월간중앙』 1974. 7,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재수록.
- , 「민족문학의 현대계」, 『창작과비평』 1975, 봄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 창작과비평사, 1985, 재수록.
- , 「민중은 누구인가」, 『뿌리깊은 나무』 1979. 4,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시인사, 1979.
- ,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 1966. 겨울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재수록.
- , 「시민문학론」, 『창작과비평』 1969. 여름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재수록.
- ,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 『창작과비평』 1978. 겨울호,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시인사, 1979, 재수록.
- , 「제삼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1979. 가을호,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시인사, 1979, 재수록.
-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창작과비평』 1972. 여름호, 『문학과 민중』, 민음사, 1977.

- , 『문학과 민중』, 『창작과비평』 1973. 봄호, 『문학과 민중』, 민음사, 1977.
- 신승엽, 「민족문화론의 방향 조정을 위해」, 1997, 『민족문화를 넘어서』, 소명출판, 1999, 재수록.
- 신승환, 「시민문화론에서 근대극복론까지」, 설준규·김명환 편, 『지구화시대의 영문학』, 창비, 2004.
- 신채호, 「조선혁명의선언」, 1923.
- 염무웅, 「민족문화, 이 어둠 속의 행진」, 『월간중앙』, 1972.
- , 「식민지시대 문화의 인식」, 『신동아』, 1974.
- 윤병로, 「참다운 민족문화의 정립」, 1986, 『민족문화의 모색』, 한국학술정보, 2001, 재수록.
- 이광호, 「〈민족문화〉의 역사적 범주에 관하여」, 1994, 『환멸의 신화』, 민음사, 1995, 재수록.
- 이일환, 「백낙청론-또 하나의 이상주의자」, 『알테고리와 아이러니 사이』, 한신문화사, 1999.
- 이종욱, 「역사는 다시 쓰여진다」, 『한국사학사신보』 8, 2003. 9.
- 임우기, 「민족문화론의 계급론적 관점」, 『문화과사회』 1988. 가을호.
- 임지현,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이념의 속살』, 삼인, 2001.
- 임현영, 「『민족문화』 명칭에 대하여」, 『한국문학』, 1973.
- , 「민족문화에의 길」, 『예술계』, 1970. 겨울호.
- , 「민중문화의 사상적 의미」,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 임화,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 『조선일보』 1939. 10. 13-11. 25, 『개설 신문학사』,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신문학사』, 한길사, 1993.
- 정과리, 「민중문화론의 인식 구조」, 『문학과 사회』, 1988. 봄호.
- 조정환, 「80년대 문학운동의 새로운 전망」, 『서강』, 1987. 6, 『민주주의 민족문화론과 자기비판』, 연구사, 1989, 재수록.
- 채광석, 「소시민적 민족문화에서 민중적 민족문화으로」, 『개방대학신문』, 1986, 『민중적 민족문화론』, 풀빛, 1989, 재수록.
- 홍정선, 「민족문화 개념에 대한 역사적 검토」, 『문화과사회』 1988. 가을호.
- 황종연, 「민주화 이후의 정치와 문화」, 『문화동네』 2004. 겨울호.
- B. Anderson,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 E. Hobsbawm 외, 박지향·장문석 공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 강명세 역, 『179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비, 1994.
- F. Fanon,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Abstract〉

A Study of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the People in the Theory of Progressive National Literature

Kang Jeong-Gu

In the past the study of the people (Minjung in Korean) was interested in its justification, but now in its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This paper shows the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Minjung in the theory of progressive national literature in the 1970s. The concept of Minjung is born and then forgotten. And it is discoursed 'after the event'.

Firstly,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concept of Minjung.

Secondly, the concept of Minjung was used initially in 1969, yet finds its characteristics in the literature before 1969. It applies its characteristics to Minjung retroactively. It begin with Shin Kyeong-rim's note published in 1973.

And lastly, the concept of Minjung began as the core concept of the discourse of nation. Minjung is the object of enlightenment primarily, but now becomes its subject. This means that the episteme of Korean literature changes into Minjung-nationalistic one.

Key Words: Progressive Theory of National Literature(진보적 민족문학론), Minjung(민중), Formation(형성), Origin(기원), Retroaction(소급), Recognition(재인식), Reconstruction(재구성), Post-Nationalism(탈민족주의)

